

디앤씨미디어, 2022년 '스튜디오 방식' 도입해 수익성 극대화

- ▶ 웹툰 저작권 회사가 확보, 제작 내재화에 따른 작품 양산, 2차 저작물 확대 및 수익성 극대화
- ▶ 부산 스튜디오 설치 및 광주 스튜디오 설치 검토, 작가 수급 전국 단위로 확대해 협력 강화
-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및 스핀오프 런칭, 스토리 및 IP 더욱 확장

<2022-01-25> 웹소설·웹툰 Contents Provider 디앤씨미디어(263720, 대표이사 신현호)가 2022년 '스튜디오 방식'을 도입해, 기존 웹툰 제작 시스템과의 시너지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앤씨미디어 관계자는 "기존의 콘텐츠제작본부에 더해 콘텐츠기획본부를 신설해 회사내에서 웹툰 제작 전 과정을 내재화하는 '스튜디오 방식'을 도입했다"며 "웹툰의 원천적인 저작권을 회사가 확보하고 IP의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웹툰 제작 프로세스를 내부화, 전문화해 기존 제작 시스템 대비 다수의 작품 제작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2차 저작물 사업을 확대하고 제작 효율성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산, 경남지역 작가 수급 및 웹툰 제작 확대를 위해 부산 스튜디오를 설치했으며, 전라도 광주에도 웹툰 스튜디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도권중심으로 집중된 작가 수급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각 지역의 작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디앤씨미디어의 글로벌 인기작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 본편이 완결됐으나 올해 상반기에 국내 및 해외에 외전을 런칭해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나 혼자만 레벨업' 세계관을 확장한 웹소설 스핀오프(Spin-off)가 상반기에 런칭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웹소설 스핀오프(Spin-off)에 기반한 웹툰까지도 런칭되면서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스토리 및 IP(지적재산권)가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디앤씨미디어 신현호 대표이사는 "스튜디오 방식 도입, 전국 단위의 작가들과의 협력 강화, 메타버스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사업 및 OSMU를 강화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